

신인철학의 3대개혁사상

로 학 희

신인철학의 3대개혁사상을 옳게 분석평가하는것은 신인철학의 사회력사관을 정확히 이해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천도교는 지상천국건설을 최고의 리상으로 삼는다. 과거의 종교가 이 세상을 괴로운 것으로 보고 건질수 없는것으로 생각해왔다면 천도교는 이 세상을 개혁하여 천국을 건설할수 있다고 보았다. 바로 이런 원리로부터 출발하여 천도교는 <후천개혁>을 교의 중요한 사명의 하나로 간주하고 <정신개혁>, <민족개혁>, <사회개혁>으로 불리우는 3대개혁의 실천운동을 전개하였다.》(《김일성전집》 제99권 383페이지)

신인철학의 3대개혁사상은 정신, 민족, 사회분야의 개혁을 통하여 불합리한 당시의 세상을 뜯어고치고 땅우에 《천국》과 같은 새 사회를 건설할데 대한 사상이다.

신인철학의 개혁사상은 사회적질병론으로부터 제기되였다. 신인철학에서는 착취사회의 부패변질된 상태를 사회질병으로 특징지으면서 피질(나쁜 질병)에 걸린 사회를 구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신인철학에서는 무엇보다먼저 정신개혁에 대하여 주장하였다.

신인철학은 《정신개혁이라 함은 일종의 사상개혁을 의미한다.》라고 하였다.

신인철학에 의하면 정신개혁의 필요성은 우선 정신행위가 인간의 본질적특성이라는것과 관련된다. 신인철학은 사람이 동물과 구별되는것은 동물은 오직 본능계에 따라 행동하지만 사람은 정신 즉 의식에 따라 행동하기때문이라고 하였다. 신인철학은 사람을 개조하자면 먼저 정신개혁을 해야 한다고 하였다.

신인철학에 의하면 유물론에서는 환경이 정신을 낳지만 사람에게 일단 의식이 생긴 이후로는 의식행동이 물질행동과 병행되고 또 앞서며 특히 사상행동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고 본다.

정신개혁의 필요성은 또한 대다수의 민중은 각성되지 못한 상태여서 처지의 개선을 요구하는 자각적, 신중한 노력을 하지 못한다는것과 관련된다.

신인철학에 의하면 맑스가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고 한것은 민중의 각성, 정신개혁의 필요성을 인식한데 기초한것이다.

정신개혁의 필요성은 또한 정신개혁이 다른 모든 개혁의 준비행위가 되는 사정과 관련된다.

신인철학에서는 인간의 의식이 환경에 의하여 생기고 인간의 정신이 환경의 지배를 받지만 《바깥환경도 역시 사람이 고쳐놓기 전에는 환경스스로가 고쳐지기 만무하다. 사람이 환경을 개조한다는데는 반드시 의식문제가 따라가는것이다.》라고 하였다.

신인철학에 의하면 정신개혁에는 두가지 법칙이 존재한다. 하나는 사람성자연에 대한 분석이며 다른 하나는 반항도덕이다.

사람성자연에 대한 분석은 역사적원인에 대하여 장래의 결과를 연구하여 랭정한 리치로써 사회의 시비곡직을 비판하고 전도의 순차를 지정하는것이다. 이것은 해당한 시대에 맞는 사람성자연의 표준을 세우는것을 의미한다. 즉 역사적과정에서 지나간 사람성자연이 원인으로 되어 필연적으로 오게 될 시대를 예측하는것이다.

반항도덕은 개성의 룰리 혹은 정치제도안에서 그 결함을 알아가지고 감정과 의지로써 자연에 대하여 반항하는것이다. 사람성에는 선차적으로 반항심이 있으며 따라서 인류는 원시시대에서부터 자연에 반항(자연을 정복하고 리용)하고 사회에 반항(사회적반항으로 사회적해방과 과학적진보, 새 문화의 창조, 도덕의 진보를 이룩)하여온것이다.

신인철학에 의하면 이러한 리치에 따라 썩은 관습을 버리고 새로운 리상과 새로운 주의(수운주의)아래서 새 혼을 가지며 새 사람이 되는것이 곧 정신개벽으로 된다.

이것은 신인철학이 정신개벽의 중요성문제를 강조한것이라고 볼수 있다.

정신개벽에 대한 신인철학의 견해에는 인간의 정신의 역할을 강조하는것과 같은 긍정적요소가 있으나 그것은 사람들을 로동계급의 사상으로 무장시키는 사상혁명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정신개벽은 인간의 본질적특성에 대한 과학적해명에 기초하지 못하였으며 근로하는 인민을 우매하고 미개한 계몽대상으로만 보아오던 종래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제한성을 가지고있다.

신인철학에서는 다음으로 민족개벽에 대하여 주장하였다.

신인철학은 민족개벽에 대하여 《민족의 문화 및 생활정도를 향상발전코자 하는 개벽》이라고 함으로써 민족개벽이 민족성의 개조와 민족의 지위향상을 내용으로 한다는것을 밝히였다.

신인철학에 의하면 민족개벽의 필요성은 첫째로, 민족개벽이 문화정도의 고하, 경제정도의 우열, 정치 및 룰리도덕, 습관의 차별이 현저한 각 민족의 차별을 융화케 하여 호상의 행복을 도모케 하는것이 《세계일가주의》의 순서로 되기때문이다.

필요성은 둘째로, 약소민족의 민족적평등을 이룩하기 위해서이다.

신인철학에 의하면 부르조아민족주의는 민족적차별과 배제를 의미하는 제국주의적, 군국주의적내용을 담고있지만 수운주의가 요구하는 민족주의는 약소민족의 민족주의로서 민족의 평등과 평화를 내용으로 하기때문에 세계평화에 기여한다는것이다.

필요성은 셋째로, 민족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이다.

신인철학에 의하면 《세계일가주의》의 리상을 실현하는데서 먼저 민족개벽을 시작하는것이 옳은 순서로 된다. 민족의 지위향상이란 결국 민족이 련방국가안의 예속상에서 벗어나 독립을 달성한다는것을 의미한다는것이다.

신인철학에서는 민족개벽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뒤떨어진 민족성을 고쳐야 한다고 보았다.

신인철학에 의하면 우리 나라에 불교와 유교가 침투된 후 오랜 역사적기간에 걸쳐 고려의 불교문화, 조선봉건왕조의 유교문화가 우리의 민족성으로 화하여졌다는것이다. 유교에서 유래된 옛날승배사상, 의타사상, 승문배무(문장을 숭배하고 군사를 배척함)와 같은 근성들은 우리 민족이 장래가 없고 자력이 없는 민족으로 되게 하였다는것이다. 불교에서 유래된 민족성은 퇴굴(물러서고 굴복하는것)사상, 출세간(현실도피)사상은 퇴굴의 관습(물러서고 굴복하는 방법으로 자신을 보호하는것), 출세간적선인행위의 근원으로 된다는것이다.

신인철학에서는 최제우가 유교적근성, 불교적근성을 없애기 위하여 《후천개벽》을 선언

하였고 동학을 만들어 죽은 시체와 같은 조선에 혼을 되살리기에 노력하였으며 그 자신이 검을 들고 검가를 부르며 춤추면서 보국안민을 걱정한것은 민족개혁을 위한것이라고 하였다.

신인철학의 민족개혁설은 민족성을 고수할데 대한 문제, 민족적평등을 이룩할데 대한 문제, 세계의 모든 민족이 다같이 리상사회에서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데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있으나 당시 우리 민족이 일제에게 예속된 처지에서 민족문제해결의 유일한 길인 민족해방투쟁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뒤떨어진 민족성의 개조를 주장함으로써 민족개량주의를 부채질하는것과 같은 부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신인철학에서는 다음으로 사회개혁에 대하여 주장하였다.

신인철학은 사회개혁이 사회의 개조를 의미하며 그것은 사회를 인간의 리상인 최고우주생활을 누릴수 있는 세계로 만드는것이라고 하였다.

신인철학은 사회개조의 사상은 유심론적론의보다 유물론적론의가 더 우월하다고 하면서 사회개조의 사상에 대해서는 당시 형편에서 마음대로 토론하고 연구할 자유가 없으므로 다만 유물론적사회주의사상과 수운주의의 차이점에 대해서만 강조한다고 하였다.

신인철학은 먼저 인류리상의 새 사회건설에 대한 맑스주의학설의 진리성과 정당성을 인정하였다. 신인철학은 맑스주의가 보다 좋은 세계를 경제문제의 해결에 있다고 믿고 유물론적리론과 방법을 세우고 조직을 꾸리였으며 그리하여 광범한 계급적민중운동의 단결을 이룩하였다고 하였다. 신인철학은 현대에 있어서는 맑스주의만큼 리론과 방법이 명백한것은 다른 곳에 없다고 주장하면서 새 사회의 리상 특히 모든 사람들에게 경제적풍부를 보장하려는데서는 수운주의도 맑스의 사회주의와 다를바 없다고 보았다.

그리고 수운주의와 맑스주의리론의 차이에 대하여 《다만 수운주의에서 고려하는 점 즉 사회주의리론과 차이되는 점은 유물론적경제문제에 있지 않고 인간적중심문제에 있다. 사회주의(맑스주의)의 중심문제는 경제로 최고리상을 삼는데 있다면 수운주의의 중심은 인간적으로 최고의 리상을 삼는데 있다.》라고 하였다.

신인철학에 의하면 맑스주의는 경제문제가 해결되면 인생의 최고문제가 해결되고 리상사회도 완전히 실현된다고 믿지만 수운주의는 그렇게 믿지 않는다. 지금 피압박민중이 식의주투쟁을 벌리는것은 지극히 당연하지만 아직까지 사람들이 식의주문제를 놓고 호상 소유투쟁을 계속하는것은 인간의 체면상 유치한 일이며 인간적의 영원한 리상으로 보면 식의주투쟁은 최종목적으로 될수 없다. 수운주의는 인간의 최후리상을 창조투쟁 즉 최고인간격으로부터 우주생활을 실현하는데 있다고 보았다.

수운주의가 경제문제해결을 최종목적으로 내세우지 않고 《창조투쟁》을 최후리상으로 하는 리유는 우선 《영구한 사회진화를 시인》하기때문이다.

만약 경제문제의 해결로 세상문제가 종결된다고 생각하면 사회력사의 그 이후의 변증법적변화발전을 부정하는것으로 된다는것이다.

신인철학은 우리가 영구한 사회발전을 인정하게 되면 경제문제해결이후의 사회도 계속 변화할것인즉 그 변화는 물질적인것보다 정신적인것일것이며 경제문제이외에 인간격을 더 높이 발휘시키는 문제가 제기될것이라고 하였다. 이로부터 수운주의는 정신적인것과 물질적인것을 함께 추진하는 성신쌍전을 주장한다고 하였다.

수운주의가 경제문제해결을 최종목적으로 내세우지 않고 창조투쟁을 최후리상으로 하는 리유는 또한 《인류의 영원한 투쟁성》을 주장하기때문이다.

신인철학은 《인간성의 본능에는 투쟁의 습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인간의 투쟁성은 장구한 인류력사를 통하여 표현되었으며 때문에 유물사관은 과거력사를 계급투쟁의 력사로 보는것이라고 하였다. 신인철학에 의하면 만일 우리가 인류의 영원한 투쟁성을 인정한다면 경제문제의 해결로 계급투쟁은 끝나도 영원한 투쟁성은 또 다른 출구를 찾아낼것이며 그것이 바로 창조투쟁이라는것이다.

신인철학에 의하면 《창조투쟁》은 인간격의 투쟁이며 동물적투쟁 즉 소유투쟁을 벗어난 인간적행위로 된다. 창조투쟁은 기술적투쟁과 진리의 투쟁으로 구성된다. 이에 대하여 신인철학은 《창조투쟁은 과학에만 관계되는것이 아니라 과학으로부터 다시 바로 흘러 진실한 의미의 종교, 예술, 도덕 다시말하면 최고인간격발후에 노력하는 투쟁》이며 《창조투쟁》을 벌리는 때에 인간은 동물적투쟁으로부터 《인간격의 투쟁으로 나아간 인간행위》를 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여 신인철학은 《유물론적사회리상은 오직 한가지의 외적인 물질적 조건만으로 사회개혁의 리상을 삼았으나 수운주의의 사회개혁은 인간격중심주의아래서 경제적해방을 시인하며 나아가 최고인간격의 발휘로 인간을 모든 비렬한 동기로부터 해방하는 곳에 진정한 리상적사회가 출현될것을 믿는것이다.》라고 하였다.

신인철학은 리상사회의 목표를 모든 사람들에게 경제적풍부성과 만족을 주는것과 함께 최고의 인간격을 발휘시키는 문제로 확대하였지만 최고의 인간격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서는 제기하지 못하였다. 신인철학에서는 《창조투쟁》으로서의 진리의 투쟁을 《진실한 의미의 철학, 진실한 의미의 종교, 예술, 도덕을 위한 투쟁》으로 묘사하여 계급성을 떠난 순수한 철학, 순수한 예술, 순수한 도덕을 인간격의 내용으로 론의하였을뿐아니라 지어 종교까지도 인간의 리상적활동을 위한 목표로 그릇되게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신인철학에서는 정신개혁, 민족개혁, 사회개혁으로 불리우는 3대개혁을 주장하고 그 실천운동을 벌리였지만 그것은 근대적인 사상으로 전개되지 못하고 지어 미신신비적방법까지 주장하는것과 같은 제한성을 가지였다.